



부안군청 부안고 동문 '태원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청 내 부안고등학교 등문 모임 '태원회(회장 신의재)'는 지난 14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균등인재육성경화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태원회가 2015년 이후로 꾸준히 기탁한 장학금은 어느덧 900만원에 이른다.

신의재 회장은 "전국 최초로 대학생 전 학년 전 학기 반값등록금을 지원한 것에 지역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이 크다. 장학금 지원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행정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며 "태원회 구성원들 모두 지역을 수호하는 공직자로서 재단의 강학사업을 응원하고자 한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 균등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술선해 기부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생명나눔 사랑의 현월 20일 실시

남원시는 대학직접시와 협력 2025년 '생명나눔 사랑의 현월'을 오는 2월 2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광장·농업기술센터(오전), 보건소(오후)에서 실시한다. 이번 현월은 전북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급급히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목표로 진행. 현월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참여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원활한 현월을 위해 전날 음주는 삼가는 것이 좋다.

현혈자에게는 현혈증서와 함께 기념품과 간식이 제공되며, 현월 1회 시 봉사시간 4시간 및 기관 내구에 따라 상시 학습 시간이 인정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노암동 지사협, 뉴마트타운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노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차미화·영창길)는 지난 14일, 관내 뉴마트타운(대표 김경주)에 21호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김경주 대표는 "주민들의 사랑으로 마트가 성장할 수 있었기에 이번 착한가게 참여는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힘이 되는 마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암동은 착한가게, 착한기증, 1인1계좌 등 정기 기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무주군에 생필품 기탁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17일 무주군에 세탁 세제와 삼프 린스 등 생필품 1,047박스(1억원 상당)를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해달라며 기탁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김정안 대표는 "각박한 세상,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삶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매일 쓰게 되는 생필품인 만큼 이웃들이 일상에서 희망과 욕구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의 아동들을 후원하는 사회공익법인(서울 소재)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허가한 교육·사회복지 후원 기관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함께하는 탄소중립 이행 문화 확산

일회용품 없는 전북 선포식… 현대차·하림·전북은행 등 6개 기업과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회용품 없는 전북' 선포식을 개최하고 일상 속 일회용품 감축 실천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감축을 선도하고 민간기업과 도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전북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는 특별한 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라는 실천 캠페인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공동선언이 진행됐다.

특히, 2024년 K-리그 최초로 축구장 내 푸드트럭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도입한 '전북현대모터스FC'가 주목을 받았다. 이는 스포츠 행사에서의 친환경 실천 사례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5일,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하림 △전북은행 △전북현대모터스C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와 '일회용품 없는 전북'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각 기업 및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일회용품 감축과 재활용 촉진,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전북자치도와 전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기업별 실천 캠페인을 보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구라는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생활 속 일회용품을 함께 줄여 나가겠습니다! △(하림) 물물복지와 환경보호를 통해 건강한 식단 만들고 일회용품 줄여 나가겠습니다! △(전북은행) 우리는 고객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녹색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전국최초 K-리그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품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지구를 살립니다 등이다. /0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약사회, 성금 1400만원 기탁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전주 리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을 비롯해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 이선경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장, 장회정 전북기정 위탁지원센터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탁식의 의의를 더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 물품지원과 전북기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정위탁 이동 심리치료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형 이동복지사업은 지역적 특성상 보건·복지·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단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열악한 의료지원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한 전북기정위탁지원센터의 입양·기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입양 및 기정위탁 아동 중 괴임행동이나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자치도 약사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836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성금을 전달하여 온열매트를 구입, 도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은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0만호 기자

고향사랑으로 뭉쳤다… 정읍·고창 농축협, 8000만원 상호 기부

지역 간 상생을 위한 따뜻한 기부가 이어졌다. 정읍시와 고창군 농축협 조합장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4000만원씩 기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동행을 약속했다.

정읍시와 고창군 농축협 조합장들은 17일 정읍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와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를 비롯해 정읍과 고창의 11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환 시장은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며 "기부금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환 시장은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며 "기부금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도통동, 산불방지종합대책계획 수립 비상근무 나서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난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112일간 2025년 봄철산불방지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산불 비상근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일에는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일반공무원진화대를 편성해 산불업무 담당자·산불대책본부를 운영·산불진화차 등집령포, 살수기 등을 대해 산불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일반공무원 진화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산불관련 지식함양을 위해 산림청 산림교육원·산불진무 안전교육

을 이수하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삼계면 행복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삼계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경문, 김진덕)가 지난 14일 삼계면 시무소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해촉 및 위촉·특화사업 계획 논의,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 나눔 사업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인센, 봄봄 기타 지역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을 논의했다.

김진덕 민간위원장은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덕 위원장은 "매일 쓰게 되는 생필품인 만큼 이웃들이 일상에서 희망과 욕구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경문 삼계면장은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과 자발적인 봄봄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애써주시는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의료원,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상설매장 운영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17일부터 남원 원예농협과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 족진을 위하여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상설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설매장은 남원의료원이 2024년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대상으로 '찾아가는 봄문화 페스티벌' 활동 실시 중에 지역 농가의 견의로 추진하게 되었다.

남원의료원은 매주 월요일 상설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기후변화 및 수입농산물 증대로 인한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은 "이번 우리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상설매장 운영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통합관제센터, 성범죄 피의자 검거 감사장 받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4일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성범죄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김제경찰서장(서장 백형석)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17일 시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14시 20분 경 관제요원 A씨는 CCTV 모니터링 중 교월동 구신공원 내에서 여장을 하고 여자회장실로 출입하는 남성 피의자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성범죄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표창장 수여식에는 김제경찰서장이 참석해 성범죄 피의자 검거의 뜻을 전했다.

특히 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생활방법, 재난재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1,559여 대의 CCTV를 16명의 관제요원이 4조 2교대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관제와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지능형 실시간 관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